

# 영국 극우정당 성장의 사회문화적 요인: 2014 영국독립당(UK Independence Party)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새미\*\*

최진우\*\*\*

## 〈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론   |
| II. 영국 극우정당의 부상 배경                                  | 참고문헌     |
| III. 영국독립당의 유럽의회 진출 요인: 정치·제도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 Abstract |

주제어: 극우정당, 영국독립당, 유럽의회선거, 유럽통합, 다문화주의

## 국문요약

영국의 극우정당인 독립당은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영국에 배정된 73개 의석 중 24개를 차지해 영국 내에서 정당 지지율 1위를 차지하며 최다 의석을 확보했다. 군소정당에 불과하던 영국독립당의 지지율이 갑자기 상승한 이유는 무엇인가? 기존 연구들은 극우 정당에 대한 지지 확대를 선거제도의 변화와 같은 정치적 요인과 경기 침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같은 경제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면서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영국독립당이 약진한 것은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한 이해 없이는 설명이 어렵다. 영국사회로 유입되는 이주민의 급격한 증가는 유럽회의론의 확산을 촉발했고, 다문화주의 정책의 실패는 영국사회 정체성의 위협으로 받아들여져 결과적으로 유럽회의론과 이주민 제한을 선거 구

\* 본 논문은 2013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임(과제번호: 2013/SIA3A2/052725).

\*\*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주저자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교신저자

호로 결합시킨 영국독립당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제 1당의 지위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이다.

## I. 서 론

전통적으로 보수, 노동의 양당체제를 100년 넘게 유지해 온 영국에서는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전례 없는 이변이 발생했다. 극우 성향을 특징으로 하는 군소 정당인 영국독립당이 영국에 할당된 유럽의회 의석 73개 중 24개를 차지해 최다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1906년 총선 이래 전국단위 선거에서 제3당으로서는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한 것이다<sup>1)</sup>. 영국독립당은 여세를 몰아 2015년 하원의원 보궐 선거에서는 클랙턴(Clacton) 지역 더글러스 카스웰(Douglas Carswell)이 60퍼센트의 득표율로 당선되어 처음으로 국내 하원의원을 배출하기도 했다. 이처럼 영국독립당은 1993년 창당 후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대중적 지지도에 있어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역사적으로 영국에서는 극우정당의 성장이 여타 서구 유럽 국가들에 비해 줄곧 낮은 편이었으나 최근 유례없는 지지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영국독립당의 성장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영국독립당의 갑작스런 부상에 대한 설명은 다른 유럽국가의 극우정당의 사례를 설명함에 있어 적용 가능한가?

최근 유럽에서는 경제위기와 이민자 증가로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기존 정치 질서에 실망감을 제기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극우정당의 세력이 커지고 있다. 극우정당의 성장은 기존 정당정치에 대한 환멸에서 비롯된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극우정당은 주로 주류집단의 공동체적 정체성의 보존만을 강조하면서 소수집단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논란을 낳는다. 이러한 가운데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나타난 극우정당들의 약진은 이목을 끈다. 유럽통합에 회의적인 극우정당들이 유럽의회 의석의 18.6 퍼센트, 즉 전체 751석 중

1) BBC 2014. "UK European election results" (BBC 14/05/26)

<http://www.bbc.com/news/events/vote2014/eu-uk-results> (검색일 2015년 10월 11일)

128석을 차지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의 국민전선(FN: Front National)과 영국독립당(UKIP: UK Independence Party)은 국내 유권자로부터 가장 높은 득표율을 얻어내 유럽연합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2000년대 이후 극우정당의 세력이 확장되고는 있었지만 2014년 유럽의회라는 제도권으로 대거 진출한 것은 극우정당의 성장이 일부 국가에 한정된 단순한 주변적 현상이 아님을 보여 준다. 극우정당에 대한 지지 증가는 국내 주류정당 정책을 우경화시킬 수 있고, 타문화에 대한 인정과 배려를 중요한 모토로 삼고 있는 유럽통합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처럼 극우정당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약진하고 있고 국내에서의 역할과 위상도 증가함에 따라 유럽 극우정당에 대한 국내외 학계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극우정당의 연구는 주로 극우정당 발흥 및 성패요인과 관련하여 다루어지고 있으며, 발생 원인에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선거제도나 정치문화와 같은 정치적 요인, 실업률과 경제침체와 연관된 경제적 요인, 이주민과 정체성을 포함한 사회문화적 요인이 그것이다.

우선 극우정당의 성장을 설명함에 있어 선거제도의 변화와 같은 및 제도적 요인 또는 민족주의적 관념의 흥기와 같은 이념적·문화적 요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시각을 들 수 있다<sup>2)</sup>. 국내 연구에서는 권문수가 프랑스 극우정당의 성장과 한계의 주요 요인으로 선거제도를 꼽고 있으며<sup>3)</sup>, 김주희는 독일에서 극우정당 진출이 미약한 주요 원인으로 연방차원의 진입제한 규정을 지적했다<sup>4)</sup>. 김민정과 홍지영은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노르웨이 극우정당 지지요인에서 좌우이념에 의한

2) Marcel Lubbers, Merove Gijberts and Peer Scheepers, "Extreme Right-Wing Voting in Western Europe."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1(3). (2002), pp. 345-378.; Jean Tillie and Meindert Fenema, "A Rational Choice for the Extreme Right," *Acta Politica* 33(2). (2002), pp. 223-249.; Wouter Van der Brug, Meindert Fennema, and Jean Tille, "Anti-immigrant Parties in Europe"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37-1(2000), pp. 77-102.; Simon Bornschieer, "The New Cultural Divide and the Two-Dimensional Political Space in Western Europe," *West European Politics* 33(3), (2010), pp. 419-444.; Piero Ignazi, *Extreme Right Parties in Western Europ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pp. 20-22.

3) 권문수, "프랑스 극우정당의 성장과 한계." 『사회과학연구』 22(2). (2010).

4) 김주희, "독일의 극우정당과 유럽의회의 진출요인." 『한독사회과학논총』 25(1), (2015).

이념적 동기를 공통적으로 주요하게 작동한 동기로 보았고<sup>5)</sup>, 김면회와 정혜옥은 탈물질주의 가치로 인해 발생하는 문화적 분열구조가 스웨덴 극우정당의 성장을 제어하고 있음을 밝혔으며,<sup>6)</sup> 고상두와 기주옥은 스페인의 지역주의 정치문화가 극우정당 출현을 제약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sup>7)</sup>

다음으로는 경기 침체와 이로 인한 실업률 증가, 그리고 이에 대한 반발 심리가 극우정당의 지지로 이어진다는 견해가 있다.<sup>8)</sup> 국내 연구에서 강유덕과 오창룡은 유럽회의주의 확산 현상의 원인을 최근 수년간 지속된 경기침체에서 찾으면서 유럽의회 선거에서의 극우당의 약진이 그 결과임을 주장한다.<sup>9)</sup> 윤종빈, 김진주, 정희옥은 영국인이 유럽의회에 대해 갖는 신뢰도에 있어 경제적인 이해타산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분석함으로써 유럽재정위기 이후 유럽통합에 반대하는 경향과 극우정당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sup>10)</sup> 유럽통합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문제들이 유권자들로 하여금 대안적 세력으로서 극우정당에 매력을 느끼게 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는 견해가 있다. 이는 외국인과 이민자의 증가가 자국의 문화와 정체성에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간주해 이에 대한 반감으로 유럽인들 사이에서 극우정당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sup>11)</sup>.

5) 김민정, 홍지영, “서유럽 극우정당지지 동기 분석,” 『국제정치논총』 52(5), (2012).

6) 김면회, 정혜옥, “스칸디나비아 3국의 극우정당 발전 양상 비교연구: 스웨덴 민주당의 전망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31(2), (2013).

7) 고상두, 기주옥, “극우정당 출현의 제약요인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47(1), (2013).

8) Matt Golder, “Explaining Variation in the Success of Extreme Right Parties in Western Europe,”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6(4), (2003), p. 438.; Robert W. Jackman and Karin Volpert, “Conditions Favouring Parties of the Extreme Right in Western Europ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6(4), (1996), pp. 501-521.

9) 강유덕, 오창룡, “경기침체와 유럽회의주의의 부상: 제8차 유럽의회 선거결과를 통한 고찰,” 『EU 연구』, 39 (2015).

10) 윤종빈, 김진주, 정희옥, “영국인의 유럽의회에 대한 인식,” 『국제정치연구』, 17(1) (2014).

11) Greetje Lucassen and Marcel Lubbers, “Who Fears What? Explaining Far-Right-Wing Preference in Europe by Distinguishing Perceived Cultural and Economic Ethnic Threat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15 (December 2011); Daniel Oesch, “Explaining Workers’ Support for Right-Wing Populist Parties in Western Europe: Evidence from Austria, Belgium, Norway, and Switzerland,”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9-3 (2008).; Pippa Norris, *Radical Right: Voters and Parties in the Electoral Marke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이는 최근 극우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포퓰리즘 정당의 정강정책이 공통적으로 이민과 난민, 다문화 사회의 문제에 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는 점과 연관이 있다. 이민과 난민의 유입, 그리고 다문화 사회의 도래에 대한 대중적 불만을 극우정당이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함으로써 극우정당의 세력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국독립당의 급속한 성장세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극우정당 부상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정치적 또는 경제적 변수를 결정적인 동인으로 본다.<sup>12)</sup> 그러나 영국의 2014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는 기존 연구에서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요인으로는 설명이 어렵다. 정치적 요인의 경우, 유럽 의회선거를 시기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영국독립당의 득표율 추이를 설명하기 적합하지 않다. 유럽의회 선거제도를 원래의 단순다수제에서 비례대표제로 바꾼 다음 시행된 1999년, 2004년, 2009년 선거에서 나타나고 있는 득표율의 꾸준한 증가세는 선거제도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2014년의 급속한 증가세는 설명하기 어렵다. 경제적 요인도 마찬가지다. 경제침체와 실업률 증가가 극우정당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상정되지만 유럽재정위기 이후 영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간소비가 경기회복을 주도하며 연간 1.7 퍼센트의 실질 GDP성장률을 기록했으며, 가계의 가처분소득대비 소비 비중도 여타 유로존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주택시장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상승지표를 보일 뿐 아니라 실업률과 고용률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sup>13)</sup>. 영국독립당에서 안정적이고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지역인 남서부와 남동부의 경우, 실업률은 영국 평균보다 낮다. 특히 2014년 영국독립당의 지지율은 남동부에서 가장 높았지만 남동부의 실업률은 영국전역에서 가장 낮은 편이었다. 반면 실업률이 가장 높은 북동부는 영국독립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지 않다.

12) 주정립. “서유럽의 신극우주의 의회민주주의 체제의 위기.” 『국제지역연구』, 7(3) (2003).; 홍태영. “유럽의 시민권, 정체성 그리고 문화적 인종주의: 국민국가의 전환과 극우 민주주의.” 『한국정치연구』, 20(2) (2011).; 정희라. “다문화 민족주의는 가능한가?” 『역사학보』, 212 (2011).; 임종현. “유럽의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 현상에 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16(1) (2006).

13) 김준엽. “영국의 EU탈퇴 관련 논란의 배경과 향후 전망.” 『지역경제포커스』, 7(6) (2월 26일, 2013).

실업률은 영국독립당에 대한 지지율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국독립당을 사례로 해 극우정당의 성장과 관련한 요인들을 다시 검토하는 가운데 사회문화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을 시도한다. 사실 지금까지 영국독립당의 부상과 관련된 연구들은 제한적이다. 더욱이 유럽의회선거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이면서도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부재하다는 이유로 연구가 매우 적다<sup>14)</sup>. 이러한 가운데 본 논문은 영국의 유럽의회 선거에서 영국독립당이 어떠한 배경 하에서 성장할 수 있었는지 2014년 유럽의회 선거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 II. 영국독립당의 부상 배경

### 1. 영국 극우정당의 특성

영국 극우 개념의 시초는 전통적 극우주의로 분류되는 영국파시스트연맹(BUF: the British Union of Fascists)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국이 우선(Britain First)”이라는 구호에서 드러나듯이 BUF는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했으며 영국적 미덕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sup>15)</sup> 인종 차별과 종교 박해는 영국적 특성에 반하는 이질적 요소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것으로 합리화한다. 예를 들어 BUF가 표방하는 반유대주의는 단순히 유대인이라는 인종과 유대교라는 종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유대교가 영국정책과 반대되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16)</sup> 이처럼 영국에서 극우의 의미는 본질적으로 민족주의와 보수적 특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영국 극우주의 세력의 역사를 살펴보면, 1950년대 인도, 파키스탄 등지에서 이 민자가 대거 유입된 후 백인 민족주의를 추구하는 급진주의적 정치운동이 등장했

14) Roger Eatwell, “The extreme right in Britain.” *Western Democracies and the New Extreme Right Challenge*. (2004).; Robert Ford and Matthew Goodwin, “Understanding UKIP: Identity, Social Change and the Left Behind,” *The Political Quarterly*, 85(3) (2014).

15) 김명환, “영국 파시즘 연구.” 『영국연구』 제11호 (2004).

16) 장문석, “파시즘의 알리바이?” 『영국연구』 제29호 (2013).

으며, 1960년대에는 영국국민당(BNP: British National Party), 국민전선(NF: National Front), 영국운동(BM: the British Movement) 등이 인종주의적 성향을 보이며 극우적 성격의 정치활동을 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정당이기보다는 문제를 일으키는 극소수에 불과한 주변적 존재였다.<sup>17)</sup> 극우분자의 본격적인 정치세력화는 1980년대 이후 유럽회의주의 시각과 제노포비아(xenophobia) 현상이 맞물려 확대 재생산되면서부터다.<sup>18)</sup>

영국의 유럽회의주의 담론은 극우세력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다. 오우기(Aughey)는 영국인들은 프랑스, 미국과 달리 영국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위협받는 것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기 때문에 유럽연합 논쟁은 영국적 특성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다.<sup>19)</sup> 웰링스(Wellings)도 영국의 강한 민족주의적 특성을 지적하면서, 유럽통합 담론은 주권과 통치권에 대한 영국인들의 인식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는 유럽 회의론적 시각과 보수우파적 성향으로 발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20)</sup> 드로이(Drewy) 또한 유럽통합 담론이 영국의 보수적인 성향을 강화시킨 것으로 본다.<sup>21)</sup> 특히 이러한 현상은 영국의 위상이 약화될 때 더욱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기퍼드(Gifford)에 따르면 영국의 지위 쇠락과 함께 대중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증가했고, 기존 정당들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영국성을 강조하면서 우파 성향의 경쟁이 강화됐다고 한다.<sup>22)</sup>

이주민과 다문화 담론은 유럽연합 확대에 따른 이주민 대거 유입, 2001년 브래드포드(Bradford)에서 발생한 이민자 청소년 폭동, 미국의 9.11테러, 이라크 전쟁,

17) 영국 극우정당이 상대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약하다고 평가 받는 것은 유럽대륙 국가들에 비해 급진적 사회주의가 발달하지 않았고 노동운동이 비활동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영국적 예외설(English Exceptionalism)이라고도 한다. 정희라, (2012).

18) 1988년 마가렛 대처(Margaret Hilda Thatcher)의 브뤼헤(Brugge) 연설은 영국에서 유럽 공동체의 권한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여 보수성을 촉발시켰고, 민족주의 개념으로 확대되어 사회통합과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는 단초를 낳았다.

19) Arthur Aughey, "Anxiety and injustice: the anatomy of contemporary English Nationalism." *Nations and Nationalism*, 16(3) (2010).

20) Ben Wellings, "Losing the peace: Euroscepticism and the foundation of contemporary English Nationalism," *Nation and Nationalism*, 16(3) (2010).

21) Gavin Drewy, "The Jurisprudence of British Euroscepticism: a stage banquet of fish and vegetables." *Utrecht Law Review*, 3(2) (2007).

22) Chris Gifford, "The Rise of Post-imperial Populism: The case of right-wing Euroscepticism in Britain."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5 (2006).

2005년 런던 테러 발생 등으로 반이슬람주의가 확산되면서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됐다. 지디스(Geddes)는 유럽연합 확대와 함께 회원국 간의 자유로운 이동이 영국 내 반유럽주의를 확산시켰고, 이민정책의 불합리성이 극우정당에 대한 지지 확산으로 이어졌다고 본다.<sup>23)</sup> 포드와 굿윈(Ford and Goodwin)은 유권자들이 이주민을 영국 정체성을 위협받는 존재로 여기게 됨에 따라 유럽통합이 이민과 정체성의 문제와 결합되어 극우정당이 발전했다고 주장한다.<sup>24)</sup> 카우프만(Kaufmann)도 영국독립당이 정치세력화에 성공한 것은 이민문제를 정치쟁점화한 데 힘입은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sup>25)</sup>

이처럼 영국인들은 영국 고유의 문화가 훼손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으며, 극우주의는 이러한 ‘영국적인 것’에 대한 방어적 여론을 조성하고 공감대를 만들어 자극함으로써 기존 질서를 비판하는 태도를 취한다. 주로 반유럽정서와 이주민과 다문화에 대한 논의로 영국적 가치가 강화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정권을 획득하고 유지하는데 이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 2. 영국독립당(UKIP)의 역사적 전개와 유럽의회 선거

영국독립당은 1991년 마스트리트 조약 합의에 반대하던 일부 정치인들이 주축이 되어 1993년 9월에 창당되었다<sup>26)</sup>. 유럽연합으로부터의 탈퇴가 주요 목적이지만, 이민자 유입 제한, 부자 세금 축소, 복지 축소, 보건,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sup>27)</sup> 영국국민당과는 유럽연합과의 관계에서 보다 독자적인 노선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이민 정책에 있어서는 이민 반대를 주장하는 영국국민당과 달리 엄격한 규제를 강조하고 있다.<sup>28)</sup> 영국독

23) Andrew Geddes, "The EU, UKIP and the Politics of Immigration in Britain," *The Political Quarterly*, 85(3) (July–September 2014). pp. 289–291.

24) Robert Ford and Matthew Goodwin, "Understanding UKIP: Identity, Social Change and the Left Behind," *The Political Quarterly*, 85(3), (July–September, 2014).

25) Eric Kaufmann, "The Politics of Immigration: UKIP and Beyond," *The Political Quarterly*, 85(3) (July–September 2014).

26) 초대 당수는 런던 정경대(LSE) 스킵드(Alan Sked)교수로 보수당원을 탈당하면서 영국독립당을 창설했다.

27) BNP 'Immigration: Time to say enough' (2009). <http://bnp.org.uk/policies/immigration> (검색일: 2015.8.1.)



립당은 1999년 처음으로 유럽의회 의석을 3석 획득했고, 2014년에는 24명을 진출시켜 비약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의회 선거에는 1994년부터 참여했지만 실질적인 지지율은 2004년부터 나타났다. 현재 영국독립당 당수인 파라지가 당수로 당선되면서<sup>29)</sup> 기존 정당이 갖춰야 할 요소를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sup>30)</sup> 2009년 선거에서는 정치적 스캔들로 리더십의 분열을 보였고, 유럽의회 의원으로 당선자 중 두 명이 경제적 불법행위와 사기죄에 연루되면서 여론의 지탄을 받았으며, 경제침체와 같은 주요 사항에 대해 국민들을 확신시킬 정책안도 부재했고, 녹색당(Green Party)이나 국민당(British National Party)과 같은 주요 근소정당과 경쟁을 벌여야 했기 때문에<sup>31)</sup> 당시 선거전문가들은 영국독립당이 지속적인 이슈정당으로 존재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sup>32)</sup> 그러나 영국독립당은 예상을 깨고 2009년에는 유럽의회에서 13석을 확보하는 성과를 얻게 되었고, 2014년 선거에서는 유럽의회 선거 최다 득표 및 2015년 영국 의회 하원 진출이라는 개가를 올리게 된다.

이와 같은 선거에서의 성공으로 영국독립당은 극우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추고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s) 형식으로 기존 정당과 경쟁 가능한 정치적 생존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기에 이른다.<sup>33)</sup> 또한 영국독립당은 캐머런(David Cameron) 정부의 무능력한 운영능력과 비교되며, 유권자들에게 이민자에 대한 반감을 효과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정치세력화에 성공했다고 인정받기도 한다.<sup>34)</sup> 영

28) UKIP. Manifesto.(2010); UKIP. Manifesto (2014)

29) 당시 유럽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로버트 킬로이(Robert Kilroy-Silk)가 선거 이후, 당수를 비난하는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여론과 지지도에 타격을 입었고, 이로 인해 당시 당수였던 나프만(Roger Knapman)이 사임하고 현재 영국독립당 당수인 파라지(Nigel Farage)로 교체되었다.

30) Amir Abedi, Carl Thomas and Lundberg, “Doomed to Failure? UKIP and Organizational Challenges Facing Right-Wing Populist Anti-Political Establishment Parties.” *Parliamentary Affairs*, 62(1) (2009).

31) Richard Hayton, “Towards the Mainstream? UKIP and the 2009 Elections to the European Parliament.” *Politics*, 30(1) (2010).

32) B Russell, “UKIP: Last Man Standing?” (The Independent 2009/03/03)  
<http://www.independent.co.uk/news/uk/politics/ukip-last-man-standing-1635900.html>  
(검색일 2015년 10월 23일)

33) Abedi. (2009).

34) Hayton. (2010).

국독립당은 이제 양당체제를 견제하는 제3의 당으로서 부각될 정도로 대중적 지지를 받는 극우정당으로 성장한 것이다.

〈표 1〉 유럽의회선거에서 영국독립당 지지율 변화 (1994-2014)

| 유럽의회 선거 | 지지율(% of vote)   | 유럽의회 의석 수 / 총의석수 | 대표지역    |
|---------|------------------|------------------|---------|
| 1994    | 150,251(1.0)     | 0 / 87           | -       |
| 1999    | 696,057(7.0)     | 3 / 84           | 남서지역    |
| 2004    | 2,650,768(16.1)  | 12 / 78          | 이스트미들랜드 |
| 2009    | 2,498,226(16.5)  | 13 / 72          | 남서지역    |
| 2014    | 4,376,635(27.49) | 24 / 73          | 남동지역    |

자료: Ford et al. 2012. *Strategic Eurosceptics and Polite Xenophobes* p. 29와 유럽의회 영국사무소(European Parliament UK office) 재구성

이와 같이 영국독립당의 급격한 성장은 영국의 대 유럽연합 정책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영국독립당은 유럽의회에서 강경한 유럽회의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유럽의 자유와 직접 민주주의’ 그룹(EFDD: the Europe of Freedom and Direct Democracy group)에 속해 있으면서 자유, 의회민주주의, UN의 인권 선언 등을 존중하지만 이민자 증가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유럽연합이 하나의 국가 처럼 중앙집권적 정치구조를 강화시키는 ‘단일한 유럽’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 유럽국가들 사이의 협력을 선호하면서도 유럽 차원의 관료화에는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도종윤 2014).

### III. 영국독립당(UKIP)의 유럽의회 진출 요인

#### 1. 정치적 요인

선거제도는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와 정당체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sup>35)</sup> 예컨대 단순다수제는 군소정당의 출현을 억제하고 양당제의 형성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으며 비례대표제는 군소정당의 의회진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다당제가 출현할 가능성을 높인다. 영국의 경우 하원의원 선거는 각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사람이 대표자로 선출되는 단순다수제(first-past-the post system)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당체제는 양당제가 유지되고 있다. 영국의 양당제 정치문화에서는 영국독립당과 같은 군소정당은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영국에서는 1992년까지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단순다수제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영국독립당과 같은 군소정당은 단 한 석의 의석도 확보하지 못했다.

〈표 2〉 1999년 영국의 유럽의회 선거 결과

| 당        | 의석(수) | 의석 변화 | 투표율(%0) |
|----------|-------|-------|---------|
| 보수당      | 36    | + 18  | 36      |
| 노동당      | 29    | -33   | 28      |
| 자유민주당    | 10    | + 8   | 13      |
| 영국독립당    | 3     | + 3   | 7       |
| 녹색당      | 2     | + 2   | 6.3     |
| 스코트랜드독립당 | 2     | 0     | 2.7     |
| 웨일스민족당   | 2     | + 2   | 1.9     |
| 친유로보수당   | 0     | 0     | 1.4     |
| 영국국민당    | 0     | 0     | 1.1     |
| 자유당      | 0     | 0     | 0.9     |
| 사회노동당    | 0     | 0     | 0.9     |
| 기타       | 0     | 0     | 1.6     |
| 합        | 84    | 0     | 100     |

자료: BBC 홈페이지 “1999 Results.”

그러나 1999년부터는 유럽의회 선거에서 북아일랜드를 제외한 11개 선거구에 비례대표제(proportional representation)가 도입되면서 군소정당의 진출 가능성

35) Nigel Copsey, “Contemporary Facism in the Local Arena: The British National Party and Rights for Whites.” in Mike Cronin, eds. *The Failure of British Fascism: The Far Right and the Fight for Recognition.*(2009) ; Paul Hainsworkth, “The Extreme Right in France: The Rise and Rise of Jean-Marie Le Pen’s Front National,” *Representation* 40(2), (2009), pp.101-114.; Golder, (2003).

이 열리게 됐다. 1999년 유럽의회 선거결과를 보면, 자유민주당은 10석으로 이전 선거보다 8석 증가하였고, 영국독립당이 3석, 녹색당, 스코트랜드독립당, 웨일즈민족당이 각 2석의 유럽의회 의원을 처음으로 배출했다. 이러한 점에서 선거제도의 변화는 영국독립당이 유럽의회로 진출하는데 있어 중요한 촉진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영국의 하원의원 선거와 유럽의회 선거 투표율 및 정당별 선거 결과 (2005-2014)

| 하원의원 선거 (총 628석) |       |     | 유럽의회 선거(총 72석) |       |          |
|------------------|-------|-----|----------------|-------|----------|
| 국내               |       |     | 유럽연합           |       |          |
| 2005년 5월 총선      |       |     | 2009년 6월       |       |          |
| 투표율:61.40%       |       |     | 투표율: 34.7%     |       |          |
| 당                | 득표율%  | 의석수 | 당              | 득표율%  | 의석수      |
| 보수당              | 32.40 | 198 | 보수당            | 27.70 | 25       |
| 영국독립당            | 2.20  | 0   | 영국독립당          | 16.50 | 13       |
| 노동당              | 35.20 | 355 | 노동당            | 15.70 | 13       |
| 하원의원 선거 (총 633석) |       |     | 유럽의회 선거(총 73석) |       |          |
| 국내               |       |     | 유럽연합           |       |          |
| 2010년 5월 총선      |       |     | 2014년 6월       |       |          |
| 투표율:65.10%       |       |     | 투표율: 34.19%    |       |          |
| 당                | 득표율%  | 의석수 | 당              | 득표율%  | 의석수      |
| 보수당              | 36.10 | 198 | 보수당            | 23.93 | 19(-7)   |
| 영국독립당            | 3.10  | 0   | 영국독립당          | 27.49 | 24(+ 11) |
| 노동당              | 29.00 | 258 | 노동당            | 25.40 | 20(+ 7)  |

자료: EU. 2014. "European and National Elections Figured Out" p. 345와 BBC 홈페이지 "2014 results" 재구성

한편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정작 유럽적 이슈보다는 국내 정치적 요인이 선거의 과정과 결과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 선거의 목적은 유럽의회 의원 선출이지만 선거의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각 정당들의 국내 정치적 공약이라는 점에서 유럽의회 선거는 이순위 선거(second-order election)이며, 결과적으로 국내정치적 쟁점을 둘러싼 국내 정당들 간의 각축이 벌어지는 경쟁의 장인 것이다<sup>36)</sup>. 말하자면

이순위 선거인 유럽의회 선거는 집권당에 대한 평가의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투표율에서도 일순위 선거인 하원의원 선거와 이순위 선거인 유럽의회 선거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하원의원 선거의 경우 2005년에는 61.4 퍼센트이고, 2010년에는 65.1 퍼센트로 모두 60 퍼센트를 상회한다. 그러나 유럽의회 선거의 경우 2009년에는 34.7 퍼센트, 2014년에는 34.19 퍼센트로 35 퍼센트에 미치지 못한다. 이처럼 영국 내 하원의원 선거와 유럽의회 선거 간에 투표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유권자들이 각 선거에 부여하는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폐쇄형명부(closed-list) 비례대표제는 유권자와 대표자 간의 연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유럽의회 의원들의 입법행위에 대한 평가를 통해 회고적 투표나 전망적 투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37)</sup> 유권자들은 유럽의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에 근거해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집권당이 수행한 국내 정책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항의를 유럽의회 선거에서 표현한다.<sup>38)</sup> 2009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가 바로 그 예다.

2008년 영국 정치권은 정치적 스캔들에 휘말린다. 당시 영국 국회의원들은 집을 구입하거나 임대에 필요한 대출 시 이자를 제공받았는데, 집값이 상승하면서 당시 경제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해 투기에 나섰다. 영국 의원들에게 지급되었던 수당과 지출 내역이 데일리 텔레그래프(The Daily Telegraph)에 의해 공개되면서 생활비에서부터 재산증식 수단으로까지 전용됐던 의원들의 지출 내역이 광범위하게 밝혀졌던 것이다. 사건 정황이 드러나고 구차한 변명이 이어지면서 의원들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크게 실추된 것은

36) Simon Hix and Michael Marsh, "Second-order Effects Plus Pan-European Political Swings: An Analysis of European Parliament Elections across Time." *Electoral Studies*, 30 (2011).

37) 한정훈, "유럽의회 선거, 또 다시 이순위 국내정치 경쟁장인가?" 『한국과 국제정치』, 25(3) 66권 (2009).

38) Tim Bale, "Between a soft and a hard place? The Conservative Party, Valence Politics and the Need for a New Eurorealism." *Parliamentary Affairs*, 59(3) (2009); Drewy, (2007).; 그러나 동시에 유권자들은 유럽의회 선거에서 자신의 선택이 사표가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본래 관심을 두고 있던 선호(sincere preference)에 따라 투표하는 가능성도 있다. 즉, 자신의 표를 전략적으로 투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유럽의회 선거에서 1위 2위 경쟁정당보다는 소수당에 투표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K.Rief, and H.Schmitt, "Nine second-order national elections a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analysis of European election results." *EJPR* 8(1) (1980).

당연한 결과였다. 200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기존 보수당 지지자들의 표심이 상당 부분 영국독립당으로 이동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당시 사건의 여파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sup>39)</sup> 유럽의회 선거가 유럽의회 의원에 대한 평가 또는 기대에 따라 결과가 좌우된 것이 아니라 유럽의회와는 무관한 하원의원들의 행태에 대한 단죄의 의미를 가졌던 것이다.

그러나 무드(Mudde)가 지적했듯이 선거제도의 변화가 극우정당 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정적 변수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회 선거제도가 영국독립당의 유럽의회 진출을 촉진한 요소임에는 분명하나 최근의 급격한 증가 추세를 설명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sup>40)</sup> 무엇보다도 다른 군소정당의 경우 영국독립당과 같은 지지율의 증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례대표제로의 전환이 왜 영국독립당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 또한 유럽의회 선거에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난 다음 영국독립당의 지지율만이 갑자기 올라가고 있다는 점도 정치제도적 변화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 2. 경제적 요인

극우정당의 성장을 분석하는 많은 연구는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sup>41)</sup> 윤종빈은 국가 경제 전반 또는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평가가 정치적 태도를 형성한다는 경제이익이론에 근거해 영국인들이 갖는 국가경제 만족도는 유럽의회에 대한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영국독립당의 지지율이 부각된 2009년과 2014년에는 영국인들이 경제 전반에 대한 신뢰가 하락해 있었다는 점에서 위의 주장은 부합하는 면이 있다.<sup>42)</sup>

39) Robert Ford, Matthew J. Goodwin and David Cutts, "Strategic Eurosceptics and Polite Xenophobe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51(2) (2012).

40) Cas Mudde, *The Ideology of the Extreme Ri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41) Golder. 2003.; Mudde. 2007.; Kai Arzheimer and Elisabeth Carter,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s and Right-wing Extremist Party Succes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5(3) (2006)

42) 윤종빈, 김진주, 정희욱. 2014. "영국인의 유럽의회에 대한 인식." 『국제정치연구』 17(1).

영국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 모리(Ipsos MORI)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영국인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당면과제로 ‘경제’로 꼽았다. 2011년 조사에서는 경제문제의 중요성이 크다는 응답비율이 62 퍼센트에 달했고, ‘실업’을 두 번째 중요한 문제로 꼽을 만큼 경제 전반에 대해 매우 높은 위기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경제에 대한 영국인들의 위기의식이 바로 2009년과 2014년 유럽 의회 선거에서의 영국독립당 지지를 증가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표 4〉 영국의 당면과제에 대한 여론조사 (2009-2014, 10/11월 기준)

| 쟁점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 경제문제     | 49%  | 54%  | 62%  | 52%  | 44%  | 30%  |
| 실업문제     | 27%  | 28%  | 32%  | 32%  | 32%  | 24%  |
| 인종, 이민문제 | 33%  | 27%  | 23%  | 21%  | 36%  | 40%  |

자료: Ipsos MORI 재구성

아울러 영국인들은 유럽통합이 영국에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주기보다는 비용만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EU 분담금의 문제에 있어 영국인들은 영국이 EU 예산에 기여하는 분담금 규모에 비해 EU로부터 농업정책, 지역정책, 과학기술정책 등의 명목으로 받아오는 수혜액의 규모가 작으며, 이에 따라 이른바 ‘순분담금’(기여액-수혜액)의 액수가 영국의 경제적 형편에 비해 지나치게 큰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된 상태에서 만약 유럽통합이 영국경제에 가져다주는 이점이 크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면 이는 유럽통합에 회의적인 시각으로 연결될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경제적 인식이 영국독립당과 같은 극우정당의 성장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것은 추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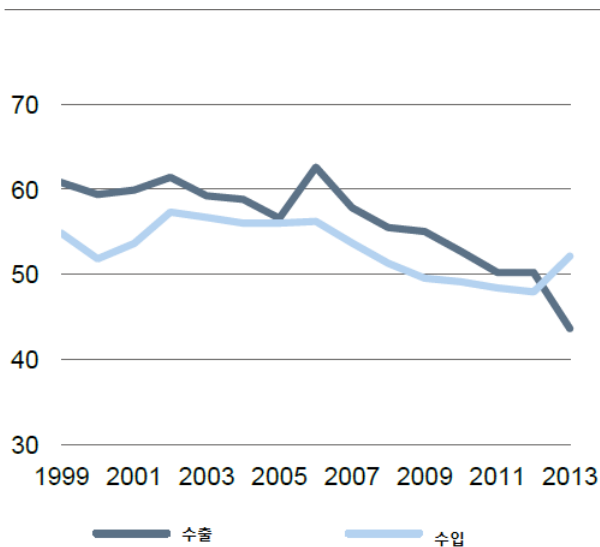
〈표 5〉 영국의 EU예산 순부담금 추이 (회계년도 기준) (단위: 십억 파운드)

|      | 2010/11 | 2011/11 | 2012/11 | 2013/11 | 2014/11 | 2015/11 |
|------|---------|---------|---------|---------|---------|---------|
| 순부담금 | 8.9     | 7.4     | 7.0     | 8.3     | 9.4     | 8.9     |

자료: 영국 재무부(HM Treasury) 2011/12년도 추정치, 이후 계획치

이와 더불어 대 유럽 교역에 있어서도 최근 들어 영국의 대 EU 수출비율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반해 수입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재정 부문에서도 EU는 경제위기 이후 재정준칙을 강화하고 역내불균형을 막기 위해 개별국가의 정책적 재량권을 축소시키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sup>43)</sup> EU 차원의 노동 규제도 강화되고 있으며 EU 확대에 따른 대규모 노동자 유입까지 감수해야 하는 영국으로서의 노동정책의 자율성도 제약 받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측면에서 EU가 영국경제에 실익을 가져다주기보다는 제약요건으로 작용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유럽회의론적 시각의 강화되고 이것이 극우정당의 지지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림 1〉 영국의 對 EU 수출과 수입 비율 (단위: %)



자료: Deutsche Bank Research. 2014. *A future in the EU?* 2p.

그러나 경제적 요인이 영국독립당에 대한 지지의 급증세를 설명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제위기가 기존 정당체제에 대한 불만을 촉발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인정하더라도 영국독립당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약진한 2014년도의

43) 강유덕·오창룡. (2015).



영국 경제는 다른 EU 회원국들에 비해서나 전 세계적인 경기 상황 추이에 비추어 보거나 양호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이후 영국 경제의 실질 지표는 다른 어느 EU 회원국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문제 자체가 정당 지지에 있어 결정적 변화를 초래한 변수로 보기는 어렵다. 영국독립당에 대한 지지의 급속한 증가는 경제위기 아닌 다른 변수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만일 정치적 변수나 경제적 변수가 영국독립당에 대한 지지율 대폭 상승의 주된 요인이 아니라면 과연 어떤 이유에서 영국독립당은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전례없는 득표율을 기록한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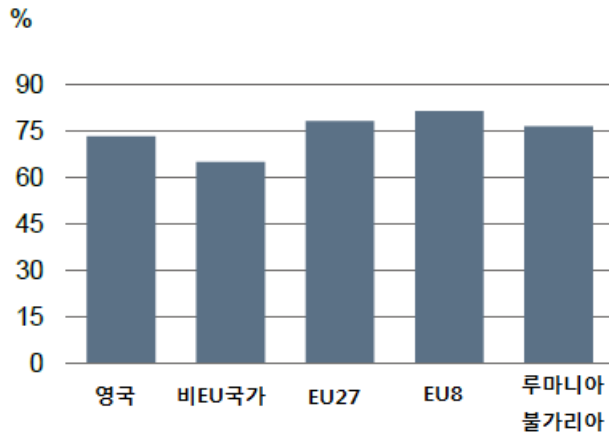
### 3. 사회문화적 요인

영국독립당이 단기간 내에 전국적으로 지지세를 확산할 수 있었던 것은 영국 국민들이 이주민에 대해 갖는 위기감 때문이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영국 여론 기관 입소스 모리(Ipsos MORI) 조사에 따르면 영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당면 과제로 ‘경제’나 ‘실업’ 이슈는 중요도가 줄고 있으나 ‘이민과 인종관계’는 2012년 32 퍼센트에서 2015년 52 퍼센트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주민 노동자의 경우, 유럽연합이 동구권으로 확대된 200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경제위기 때 주춤했다가 최근 다시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동구권 EU 회원국으로부터의 이주민 비율이 높다. 2014년 5월 기준 영국의 전체 이주민 고용의 증가율은 9 퍼센트인데, 그 중 EU 회원국 출신 이주민의 고용증가율은 16.4 퍼센트인 반면 영연방(Commonwealth)을 포함한 비유럽국가는 마이너스 0.9 퍼센트였다.<sup>44)</sup> EU 회원국 노동자의 구성은 금융위기로 국가 재정애에 문제가 있었던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5개 국가의 노동자와 사이프러스와 몰타, 크로아티아,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동유럽 국가로 이뤄지며, 2010년 이후 급증세를 보였다. 특히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는 루마니아인과 불가리아인의 고용 증가율이 30퍼센트를 상회하고 있다.<sup>45)</sup>

44) Bottcher, Barbara. 2014. *A future in the EU?* Deutsche Bank Research (July 14, 2014). 2004년 이후, 비유럽국가 이주민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유럽연합 회원국 이주민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림 2〉 2014년도 국적대비 고용비율 (단위: %)



자료: 영국통계청(ONS)

〈표 6〉 2014년(9월) 16세 이상 전년 대비 고용 증가 비율(단위: %)

| 국적     |           | 고용 증가 비율 |
|--------|-----------|----------|
| 영국     |           | 1.6      |
| 유럽 연합  | EU27      | 16.4     |
|        | EU14      | 3.9      |
|        | EU8       | 25.3     |
|        | 루마니아 불가리아 | 32.7     |
| 비 유럽연합 |           | -0.9     |
| 총      |           | 1.6      |

자료: 영국 통계청(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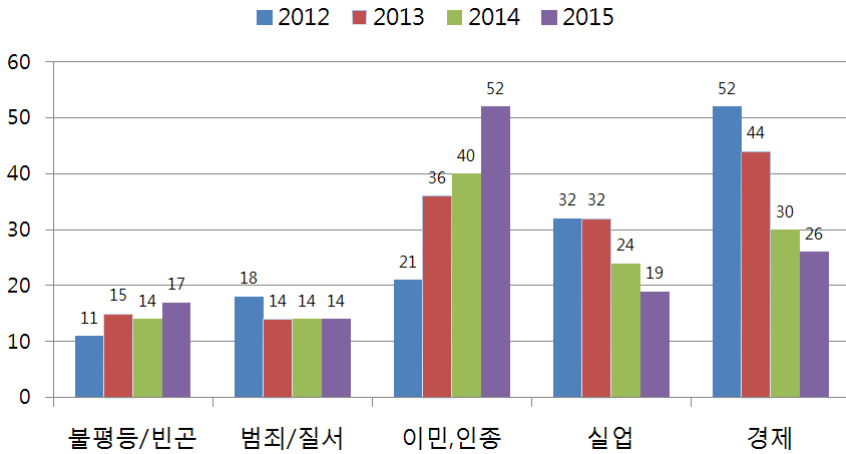
EU8: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EU14: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EU27: EU8 + EU14 + 불가리아, 루마니아, 사이프러스, 몰타, 크로아티아

45) Dieter Brauning, *The dynamics of migration in the euro area* Frankfurt: Deutsche Bank Research (July 14, 2014).

〈그림 3〉 영국의 당면과제에 대한 여론(2012-2015년, 10월 기준) (단위: %)



자료: 입소스모리(Ipsos MORI) 재구성

이트웰(Eatwell)은 유권자들 투표행태에 미치는 변수로 경제수치로서의 실업률 자체보다 사람들이 실업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주목하고 있다.<sup>46)</sup> 이트웰에 의하면 원주민들이 이주민 때문에 고용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나, 이주민들에게 수용 가능한 수준 이상의 과한 혜택이 주어진다고 여길 때 극우정당에 대해 지지도가 증가한다고 한다. 동구권으로부터의 대규모 이민 유입은 바로 이러한 심리적 기제를 발동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영국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고용 잠식에 대한 거부감의 확산은 크게 두 가지 문제와 연결된다. 첫째, 국적 개념에 기반을 둔 과거의 이주민 제한 정책이 더 이상 실행가능하지 않게 됐다는 점이다. 영국은 과거 무역국이자 식민지 경영국의 경험에 따라 독자적인 이주민 정책을 펴왔다. 역사적으로 영국은 대규모 이주민 유입에는 제한 조치를 취했고 이주민구의 균형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유럽연합과의 관계가 강화되면서 영국정부가 기존에 취하던 제한적 이주 정책은 지속될 수 없었고, 이로써 유례없이 큰 규모의 이주민이 유입되는 상황을 맞이했다. 둘째, 이주민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문화적 갈등과 다문화성의 정치화가 진행되고 있다.<sup>47)</sup> 영국을 비롯한 서구 유럽 국가들에서는 이주민에 우호적인 다문화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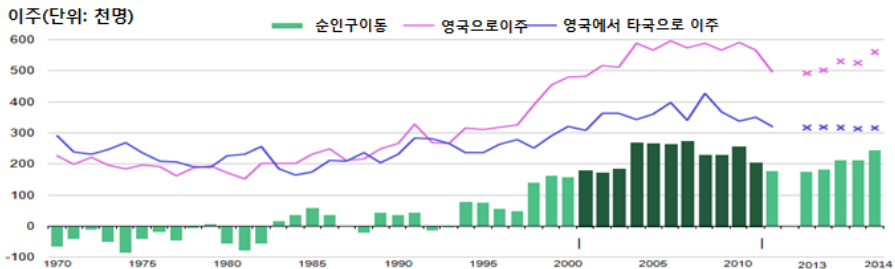
46) Eatwell, (2014).

정책에 대해 수용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민의 증가, 그것도 빠른 속도의 증가로 인해 다문화주의의 수용 가능성이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sup>48)</sup> 이에 다수의 학자들은 다문화주의의 실패를 선언하며 ‘포스트 다문화주의’, ‘상호다문화주의’ 등의 형태로 정책 방향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 1) 이주민 노동자의 대규모 유입

영국으로 유입돼 들어오는 이주민 규모는 제 2차 세계대전 직후와 1980년대 중반에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다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최근에는 영국인들이 해외로 이주하는 수에 비해 영국으로 들어오는 이주민이 2배 이상 상회하고 있다. 이처럼 균형이 깨진 대규모 이주민 유입 현상은 이주민에 대한 통제정책에 익숙했던 영국사회에 있어서는 경계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영국 이주 전개과정(1970-2014)



자료: 영국 통계청(ONS)

기본적으로 영국은 영연방 내 모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1948년 국적법(Nationality Act)에서 신영연방 국민들이 자동적인 입국

47) 최진우, “유럽 다문화사회의 위기와 유럽통합,” 『아시아리뷰』, 2(1) (2012).

48) Todd D. Fleming, “Multiculturalism and England’s Muslim minority: solution or problem?” (2007).; Will Kymlicka, *Multiculturalism: Success, Failure, and the Future* (Washington: Migration Policy Institute, 2012).; Christian Joppke, *Multicultural Citizenship* (SAGE, 2011).

권이라는 특혜를 부여해 준 점과 이주를 제한하면서도 노동자 고용정책에는 별도의 정책을 수립하지 않음으로써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했다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sup>49)</sup> 그러나 자유방임에 가까운 이민정책으로 인해 1953년 2,000여 명에 불과하던 영국의 이민자 수가 1962년 전반기에만 94,500여 명에 이르게 되자 영국정부는 자유방임원칙을 폐기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이주민에게 제한적으로 이주를 허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모색하게 된다. 이에 1971년 국가별로 이주민 유입을 차등 적용하여 식민지 국가들로부터의 이주민을 엄격히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한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와 같이 비교적 동화가 용이한 백인 외국인에게는 이주를 허용한 반면, 인도, 파키스탄 등 영연방의 신규 유색 이민자에게는 입국제한 조치를 시행했던 것이다.<sup>50)</sup> 1981년에는 영국국적법(the British nationality Act 1981)을 통과시켜 영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후대로 계승되지 않고 1대에서만 효력을 지니며, 영국시민권을 순수한 의미의 영국시민, 영국 식민지령 국민, 해외에 거주하는 영국시민으로 세분화시킴으로써 통제를 강화했다<sup>51)</sup>.

그러나 199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주 인구 균형이 기울어지기 시작하게 되고, 2004년 이후부터는 영국정부의 통제 정책이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블레어 정부는 초기에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이주를 유도한 바 있었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고숙련 노동자들의 입국 허용을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민정책 개정을 실시했고, 저숙련 노동자인 동유럽 노동이민과 영연방 청년노동자의 유입 규모를 확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규모 이주민 노동력이 유입으로 영국사회 전반의 불만과 우려가 높아지자 복지삭감, 사회보장 혜택 삭감 등 강력한 망명 억제 방안과 불법이민 근절을 위한 규제조항 등을 제정하여 통제를 시도했다.<sup>52)</sup> 이처럼 1997년부터 2009년까지 여덟 번의 법 개정과 백서 발행, 행정추진

49) 이는 적극적 수용의 의미 보다는 신영방 국가 국민들이 영국 이주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정서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김용찬. 2010. “영국의 다문화주의 반발에 관한 연구.” 『EU연구』 33.

50) 온대원. “영국의 이민정책과 사회통합.” 『EU연구』 26. (2010).

51) 김용찬. “영국의 다문화주의 반발에 관한 연구.” 『EU연구』 33, (2010).

52) 주된 내용은 2002년 이민정책의 개혁을 담은 백서(Secure Borders, Safe Havens: Intergration with Diversity in Modern Britain)와 2006년 이민난민국적법(Immigration, Asylum and Nationality Act)로 미등록 이주자 고용주에 대한 처벌과 시민권 취득을 강화하고 2007년 국경법(UK Borders Act)을 통해 이민관리 직원에게 경찰권 부여하는 것이다. Somerville (2007). <http://www.migrationpolicy.org/article/immigration-legacy-tony-blair>(검색일: 2015.

개편 등의 제도적 개혁 시도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주민 통제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유럽통합이었다. 유럽 재정위기의 진원지였던 5개국(PIIGS)과 동유럽국가로부터의 이주민의 대규모 유입은 유럽통합의 구도 속에서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영국으로 이동한 이주민 중 70 퍼센트는 폴란드 출신이며, 2014년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노동시장 개방으로 아래의 표 7에서 나타나듯이 2013년 대비 루마니아 이주민 비율은 256 퍼센트, 불가리아 이주민 116 퍼센트가 증가했다.

〈표 7〉 2014년 영국 이주민 구성

|       | 2012/2013(천명) | 2013/2014(천명) | 변화폭    | 전년대비 증가율 |
|-------|---------------|---------------|--------|----------|
| 전체    | 571.88        | 565.72        | -7.16  | -1%      |
| 유럽연합  | 398.03        | 420.65        | 22.62  | 6%       |
| 비유럽연합 | 174.43        | 144.18        | -30.25 | -17%     |
| 폴란드   | 96.48         | 91.56         | -4.92  | -5%      |
| 루마니아  | 17.69         | 63.43         | 45.74  | 259%     |
| 불가리아  | 9.99          | 21.59         | 11.61  | 116%     |

자료: 영국 통계청(ONS)

단기간의 대규모 이주민 유입 사태는 영국 내 주류사회에는 위기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특히 이주민들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치안, 복지, 정체성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은 여론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했다. 일례로 직업 없이 실업급여를 비롯한 복지 혜택을 누리하고자 하는 이주민은 영국 사회의 공공의적으로 인식될 수 있었던 것이다.

## 2) 다문화정책과 영국성

영국은 앞서 보았듯이 이주정책과 국적법을 통해 이주를 제한하면서도 이주민의

10.20.); 그러나 이는 생체인식 데이터 강제 채취의 문제와 불법채류자들의 의료서비스 제한 등 강력한 제한조치로 인도주의적 차원의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온대원, (2010).

문화에 대해서는 문화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추구하고자 했다. 영국에서는 이민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공공기관에서 출신국가와 인종에 따른 차별을 금지시킨 최초의 법안인 인종관계법(Race Relations Act)이 1965년 제정됐으며, 1976년에는 적용 범위가 민간영역으로 확대됐다. 이 법은 이주민에 대한 문화와 공존을 정책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를 전제로 하고 있었다. 블레어 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조는 유지되었는데, 2000년 인종관계법률 개정안(Race Relations Amendment Act 2000)을 통해 수용범위를 소수민족과 국가보호로 넓히고, 공공단체에서 인종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증명과 세율 개정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상대방의 문화를 인정하고자 하는 수용 의도는 1985년 스완보고서(Swann Report)를 기초로 하는 학교 교과과정에서 잘 드러났다.<sup>53)</sup>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소수 인종과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했는데, 이에 근거해 무슬림 학생들은 히잡과 터번 착용의 자유, 교내 기도소 설치, 이슬람 음식문화 유지 등이 가능해졌다.<sup>54)</sup> 다만 단서가 있다면 이주민들에게 영국적인 것에 대한 가치를 함양시키도록 하기 위해 2002년 시민권의식 법안이 제정됐다는 점이다. 이는 이주민 집단의 자치를 인정하고 문화적 전통을 유지할 수 있는 간접적 통치 방식의 효율성을 추구함으로써 영국의 포용성을 해치지 않는 동시에 영국 사회의 가치와 정체성을 유지시키는 정책을 도출하고자 노력한 결과였다.<sup>55)</sup> 이처럼 2000년대에 들어와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국가들은 주류사회가 소수자 집단을 포용하고 그들의 문화, 언어, 역사를 인정하고 수용해야 하는 의무를 강조하는 시민통합 아젠다에 집중하였다. 즉, 서로를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서로의 상호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다.<sup>56)</sup>

영국의 다문화주의도 이주 정책과 같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일찍 정립되었다. 때문에 제도적인 측면에서 영국의 다문화주의는 높은 평가를 받기도 한다. 킴리카(Kymlicka)는 1980년대부터 2010년까지의 각국의 이주민 다문화정책을 평

53) <http://www.educationengland.org.uk/documents/swann/swann1985.html> (검색일: 2014년 11월 5일) 모든 이들을 위한 교육, 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아이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학교에 다문화주의 교육 시스템을 주장했다.

54) 양현모 2010

55) 온대원 2010

56) Joppke 2007

가했는데, ‘다문화주의에 대한 의회법안 수용 여부’, ‘교육 프로그램에서의 다문화주의 적용’, ‘미디어에서 다문화주의가 존중되는 윤리적 방송’, ‘의복문화 존중’, ‘이중시민권의 허용’, ‘소수그룹과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모국어와 거주하는 곳에 언어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이주민 집단에 대한 차별 금지’ 요건에 대해 1980년 2000년, 2010년 점수를 발표했다. 영국은 다양한 문화주의 정책을 통해 8점 만점에 5.5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다<sup>57)</sup>.

〈표 8〉 각 국의 다문화주의 정책 평가(1980, 2000, 2010) (기준: 8점 척도)

| 대상국가    | 다문화주의 평가 점수 |       |       |
|---------|-------------|-------|-------|
|         | 1980년       | 2000년 | 2010년 |
| 캐나다     | 5           | 7.5   | 7.5   |
| 오스트레일리아 | 4           | 8     | 8     |
| 오스트리아   | 0           | 1     | 1.5   |
| 벨기에     | 1           | 3     | 5.5   |
| 덴마크     | 0           | 0.5   | 0     |
| 핀란드     | 0           | 1.5   | 6     |
| 프랑스     | 1           | 2     | 2     |
| 독일      | 0           | 2     | 2.5   |
| 그리스     | 0.5         | 0.5   | 2.5   |
| 아일랜드    | 1           | 1.5   | 3     |
| 이탈리아    | 0           | 1.5   | 1     |
| 일본      | 0           | 0     | 0     |
| 네델란드    | 2.5         | 5.5   | 2     |
| 뉴질랜드    | 2.5         | 5     | 5.5   |
| 노르웨이    | 0           | 0     | 3.5   |
| 포르투갈    | 1           | 2     | 3.5   |
| 스페인     | 0           | 1     | 3.5   |
| 스웨덴     | 3           | 5     | 7     |
| 스위스     | 0           | 1     | 1     |
| 영국      | 2.5         | 5.5   | 5.5   |
| 미국      | 3           | 3     | 3     |
| 유럽평균    | 0.7         | 2.1   | 3.1   |
| 전체평균    | 1.29        | 2.71  | 3.52  |

자료: Kymlicka 2012 *Multiculturalism* 26p.

57) Kymlicka, (2012).



그렇다면, 왜 영국사회에서 다문화주의가 대규모 이주민 유입현상에 대해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주민을 경계의 대상으로 수용하게 된 것일까? 이는 영국인들이 인식하는 다문화주의가 타 인종과 문화를 인정하지만 영국문화와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영국성(Britishness)’이라는 표현으로 존재하는 영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바로 그 핵심이다.

영국식 다문화주의는 소수 유색인종들을 주류 영국사회로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분리된 상태에서 각자 독자적인 사회와 문화, 인종공동체를 형성하여 존재하게 함으로써 상호 배제적인 성격을 지니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한다. 영국 브래드포드(Bradford)시의 허니포드 사건(Ray Honeyford),<sup>58)</sup> 언더커버 모스크(Undercover Mosque) 사건<sup>59)</sup> 등에서 보여진 현실이 바로 그 예다. 영국에서 태어나 자란 2세대 이주민에 의해 자행되었던 2005년 7월 런던 테러 사건은 영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는데 이는 상호문화의 공존이라는 다문화주의 가치와 달리 이주민들이 영국이라는 정체성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이었던 것이다. 이를 계기로 영국사회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다문화주의 전반에 대해 영국 주류사회 내부에서 반발과 분열이 야기되는 현상을 벌여지게 되었다.<sup>60)</sup>

키피카(Kymlicka 2012)는 진정한 다문화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차별금지 정신에 입각해서 소수의 정체성과 문화를 인정하고 지원해야 하며, 차이를 수용하되 공통의 제도로 유인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화적 측면을 기존 주류사회에서는 위협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제적 요소보다는 이민자들의 가치와 의미를 재생산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영국의 다문화주의는 문화다양성과 공존을 추구했지만, 이민자들의 가치담론에는 실패했음을 알 수 있다. 영국

58) 잉글랜드 북부 요크셔 지방에 위치한 브래드포드는 70퍼센트가 백인이며 남아시아 출신 비중이 영국 내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다. 드루먼드 중학교 교장 레이 허니포드가 인종과 문화에 관한 보수성향의 글을 솔즈버리리뷰(The Sulisburly Review)에 기고했다. 이로 인해 영국 전역에 다문화주의 교육의 논쟁을 일으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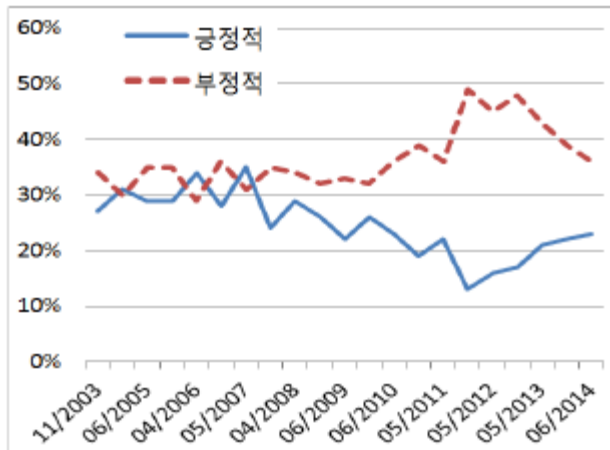
59) 영국 TV channel 4의 추적보도 프로그램이 방영한 다큐멘터리로 영국에 있는 모스크들에 잠입하여 촬영한 영상이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60) Abbas (2011); 김두진, “유럽의 집단 정체성의 정치화와 사회안보 개념.” 『국가전략』 20(1), (2014).

에서는 다문화주의로 인해 이주민과 기존 주류사회가 융화되기보다는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격리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강해졌고, 이에 대한 대응이 영국성의 강화로 나타났던 것이다.<sup>61)</sup> 2002년 국적이민명명법에서 영국의 핵심적 가치, 역사, 영국에서의 생활 등에 대한 시험을 의무화했고 테러 이후에는 2006년 인종 및 종교법안을 통해 다수의 권리를 확보하고자 했으며, 이주민들로 하여금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법의 지배, 동등한 대우, 국가와 역사적 유산에 대한 존경 등의 영국적 가치(Britishness Values)를 공유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이를 드러냈다.<sup>62)</sup>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은 영국 백인들 혹은 주류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해 느끼는 위기감이 단순한 감정적 차별이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문제 제기함으로써 시정을 요구하는 시발점이었던 것이다. 결국 영국 다문화주의의 한계, 즉 공존하되 융합하지 못한 문화적 상황은 영국사회에서 극우적 담론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sup>63)</sup>

### 3) 유럽회의주의의 만연과 영국독립당의 레토릭

〈그림 5〉 영국인들이 유럽통합에 대해 갖는 이미지 (단위: %)



자료: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 강유덕 외 2016 재인용

61) 정희라 (2009); 김두진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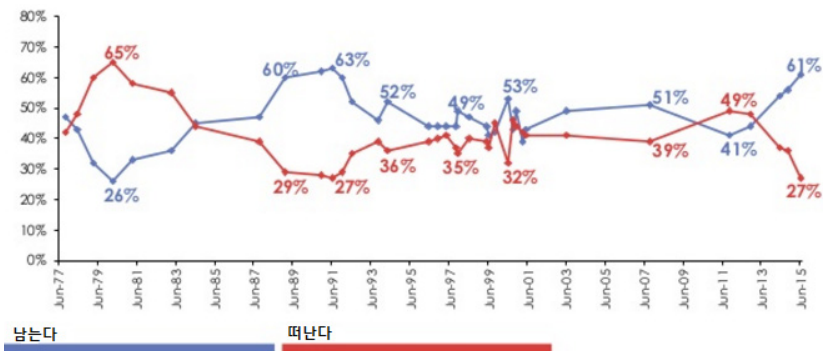
62) 권경희. “유럽 다문화주의의 위기: 변화과정과 원인.” 『유럽연구』 30(2). (2012).

63) Joppke (2012)

최근 영국 사회가 보수화되면서 ‘영국적 가치’가 강조되고 광범위한 형태로 강조되었다면, 영국독립당은 이를 잘 활용한 정당이라고 볼 수 있다. 영국독립당은 시민 민족주의(civic nationalism)를 전제로 유럽통합을 반대한다. 영국독립당이 EU 탈퇴를 주장하는 것은 유럽통합이 영국의 자치성에 훼손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며 영국의 자유주의 가치를 보존하고 통치권과 자주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독립당의 주장은 유럽통합에 대한 영국인들의 회의주의적 시각이 강화되는 시점과 맞물려 보다 설득력을 획득한다. 유료바로미터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2007년 이후부터 유럽통합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긍정적인 시각보다 우위에 있다(<그림 5> 참조).

주목할 점은 영국인들의 EU에 대한 여론은 일관되지 않다는 점이다. 아래 <그림 6>에서 보면 영국이 EU에 잔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여론 추이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2015년 1월에는 잔류를 지지하는 여론이 61 퍼센트로 탈퇴 지지 여론 27 퍼센트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동년 11월 파리 테러 이후 시행된 조사에서는 잔류를 지지하는 여론이 52 퍼센트로 이전보다 9 퍼센트나 하락했고 EU를 탈퇴해야 한다는 응답은 39 퍼센트로 12 퍼센트나 증가했던 것이다. 이는 국내외 정치적 상황과 엘리트들의 담화가 미디어를 통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영국독립당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영국사회의 우경화 경향을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6> 영국이 유럽연합에 잔류해야 하는가? (응답 %)



자료: Ipsos MORI

영국독립당은 지지의 확산을 위해 대중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고 있다. 데이터분석회사인 버드송(BirdSong)에 따르면 영국독립당이 소셜네트워크(social network)를 통해 당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sup>64)</sup> 보수당의 경우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참여율은 9 퍼센트에 불과한데 반해, 영국독립당의 경우 87퍼센트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영국독립당은 유럽 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는 집단(노동자)과의 소통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당 정책강(manifesto)에서도 “Immigration, Europe and that`s it”라는 반유럽주의 슬로건 아래, “Who really runs this country?”, “75% of our laws are now made in Brussels”, “26million people in Europe are looking for work. And whose jobs are they after?” 등으로 매우 자극적이고 감성적인 문구로 주요 이슈를 다루고 있다. 이처럼 영국독립당은 특정 주제를 가지고 대중들의 자극에 빠르게 반응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당수 파라지(Nigel Paul Farage)의 리더십도 카리스마적인 것으로 호응을 받고 있다.

<그림 7> 영국독립당의 선거포스터



자료: 영국독립당(UKIP) 홈페이지 재구성

64) 현 영국독립당 당수인 파라지(Farage)도 트위터(twitter)와 페이스북(face book)을 활용하여 137,000의 팔로워(follower)들과 정책에 대한 선전과 소통을 진행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처럼 영국독립당의 유럽회의주의 정책은 유권자들에게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가고 있으며, 과거 영국국민당과 같은 극단적 성향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 사이에 보다 광범위한 지지기반을 구축하고 있다.<sup>65)</sup> 결과적으로 유럽화 과정에서 나타난 이주민의 대거 유입은 영국인들 사이에서 타민족 혹은 비영국인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촉발시켰으며 동시에 ‘영국적(Britishness)’인 것에 대한 향수를 자극해 영국독립당에 대한 지지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VI. 결 론

본 연구는 영국의 극우정당인 영국독립당이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인 것에 주목해 지지율 급등의 원인을 찾아봄으로써 극우정당의 성장요건을 밝히고자 했다. 극우정당의 성장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 기존 연구들은 주로 정치적, 경제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치적 요인을 강조하는 관점에서는 영국에서의 유럽의회 선거가 과거 단순다수제로 시행되던 데서 비례대표제로 바뀐 후 군소정당의 진출 기회가 대폭 확대된 것이 극우정당의 성장을 촉진한 결정적 계기였던 것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선거제도의 변화로 수혜를 본 군소정당이 영국독립당 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선거제도의 변화는 1999년이지만 영국독립당에 대한 지지율이 2014년에 이르러 급상승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요인으로 최근의 영국독립당의 약진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경기침체나 실업률과 같은 경제적 상황들이 극우정당 발흥에 유효하게 작용한다고 보지만, 영국의 실질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다는 점에서 절대적 변수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된다. 특히 영국 내 고용률, GDP, 부동산 증가율이 향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영국의 유권자들은 경제적 침체에 불만을 가지고 이를 극우정당의 표로 연결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65) Paul John and Margetts, H. "The Latent Support for the extreme right in British Politics." *West European Politics* 32(3) (2009).

이처럼 기존 연구에서 논의된 정치적, 경제적 요인들로는 영국독립당의 급성장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사회문화적 요인에 초점을 맞춘다. 본 연구는 영국의 사례를 통해 서유럽 극우정당 성장의 요인으로서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변수, 특히 이주민의 대량 유입과 다문화주의 정책의 특성이 중요한 요인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주목할 점은 동유럽과 유럽경제위기를 초래한 회원국들로부터의 이주민 유입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블레어 정부 이전까지는 이주민의 유입과 유출이 비교적 균형을 이룬 것과 달리 최근에는 그간 유지하던 균형을 깨지고 이주민의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영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유럽회의주의 시각을 강화하며, 영국독립당을 지지하는 촉진요인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동유럽 국가들로부터 유입된 이주민은 복지혜택만을 누리는 집단으로 상정되었고, 이들을 ‘영국적인 것’에 반하는 ‘타자’로 구별 지었으며, ‘타자’는 반드시 영국인에 동화(assimilation)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부과했다. 즉, 이주민이나 유럽통합을 다루는 데 있어 더 이상 경제적 합리성으로 대응하지 않고, 영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반응한 것이다. 극우정당의 정치엘리트들은 이러한 정서를 자극함으로써 영국사회에 잠재되어 있던 보수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영국에서 시행한 다문화주의 정책은 이주민들의 차이를 인정하는 정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주민과 원주민과의 융화를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분리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때문에 영국인들은 이주민들을 자국의 문화를 저해하는 위협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민자들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확산되면서 이는 극우정당의 성장에 자양분이 되고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유덕·오창룡, “경기침체와 유럽회의주의의 부상: 제8차 유럽의회 선거결과를 통한 고찰,” 『EU연구』, 39호 (2015).
- 고상두·기주옥, “극우정당 출현의 제약요인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47권 1호 (2013).
- 권경희, “유럽 다문화주의의 위기: 변화과정과 원인,” 『유럽연구』, 제30권 2호 (2012).
- 권문수, “프랑스 극우정당의 성장과 한계,” 『사회과학연구』, 제22권 2호 (2010).
- 김두진, “유럽의 집단 정체성의 정치화와 사회안보 개념,” 『국가전략』, 제20권 1호 (2014).
- 김면희, 정혜욱, “스칸디나비아 3국의 극우정당 발전 양상 비교연구: 스웨덴 민주당의 전망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제31권 2호 (2013).
- 김명환, “영국 파시즘 연구,” 『영국연구』, 제11호 (2004).
- 김민정, 홍지영, “서유럽 극우정당지지 동기 분석,” 『국제정치논총』, 제52권 5호 (2012).
- 김용찬, “영국의 다문화주의의 반발에 관한 연구,” 『EU연구』, 제33권 (2010).
- 김준엽, “영국의 EU탈퇴 관련 논란의 배경과 향후 전망,” 『지역경제포커스』, 제7권 6호 (2월26일, 2014).
- 김주희, “독일의 극우정당과 유럽의회의 진출요인,”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5권 1호 (2015).
- 온대원, “영국의 이민정책과 사회통합,” 『EU연구』, 제26권 (2010).
- 윤종빈·김진주·정희욱, “영국인의 유럽의회에 대한 인식,” 『국제정치연구』, 17(1) (2014).
- 임종현, “유럽의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 현상에 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6권 1호, (2006).
- 장문석, “파시즘의 알리바이?,” 『영국연구』, 제29호 (2013).
- 정희라, “영국에서 극우정당은 살아남을 것인가?,” 『역사와 문화』, 24호 (2012).
- \_\_\_\_\_. “다문화 민족주의는 가능한가?” 『역사학보』, 12호 (2011).
- 주정립, “서유럽의 신극우주의 의회민주주의 체제의 위기,” 『국제지역연구』, 제7권 3호 (2003).
- 최진우, “유럽 다문화사회의 위기와 유럽통합,” 『아시아리뷰』, 제2권 1호 (2012).
- 한정훈, “유럽의회 선거, 또 다시 이순위 국내정치 경쟁장인가?,” 『한국과 국제정치』, 제25권 3호 (2009).
- 홍대영, “유럽의 시민권, 정체성 그리고 문화적 인종주의: 국민국가의 전환과 극우 민주주의,” 『한국정치연구』, 20(2) (2011).
- Abedi, Amir. Thomas Carl, Lundberg, “Doomed to Failure? UKIP and Organizational Challenges Facing Right-Wing Populist Anti-Political Establishment Parties.”

- Parliamentary Affairs*, vol.62, no.1 (2009).
- Arzheimer, Kai. Carter, Elisabeth,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s and Right-wing Extremist Party Succes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vol.45, no.3 (2006).
- Aughey, Arthur, "Anxiety and injustice: the anatomy of contemporary English Nationalism." *Nations and Nationalism*, vol.16. no.3 (2010).
- Bale, Tim, "Between a soft and a hard place? The Conservative Party, Valence Politics and the Need for a New Eurorealism." *Parliamentary Affairs*, vol.59, no.3 (2006).
- BBC News "UKIP Beats Labour to Second Place" June 8 2009.  
[http://news.bbc.co.uk/2/hi/uk\\_news/politics/8088343.stm](http://news.bbc.co.uk/2/hi/uk_news/politics/8088343.stm)
- BBC News "UK European election results", May 26, 2014.  
<http://www.bbc.com/news/events/vote2014/eu-uk-results> (검색일: 2014.10.11.)
- Betz, Hanss-Georg. Johnson, Carol, "Against the Current-stemming the Tide: the Nostalgic ideology of the Contemporary Radical Populist Right," *Journal of Political Ideologies*, vol. 9,no. 3 (2004).
- BNP 'Immigration: Time to say enough' <http://bnp.org.uk/policies/immigration> (2009).
- Bornschieer, Simon, "The New Cultural Divide and the Two-Dimensional Political Space in Western Europe," *West European Politics*, vol.33, no.3 (2010).
- Bottcher, Barbara, *A future in the EU?* Deutsche Bank Research, (July 14, 2014)
- Copsey, Nigel, "Contemporary Fascism in the Local Arena: The British National Party and Rights for Whites." in Mike Cronin, eds. *The Failure of British Fascism: The Far Right and the Fight for Recognition* (Basingstoke: Macmillan, 1996).
- Drewy, Gavin, "The Jurisprudence of British Euroscepticism: a stage banquet of fish and vegetables." *Utrecht Law Review*, vol. 3, no. 2 (2007).
- Eatwell, Roger, "The extreme right in Britain." *Western Democracies and the New Extreme Right Challenge.*, edited by Eatwell, R. Mudde, C. ed. (London: Routledge, 2004).
- \_\_\_\_\_. "Ten Theories of the Extreme Right." Cas Mudde, ed. *Political Extremism* (London: Sage, 2014).
- Fleming, Todd D, "Multiculturalism and England's Muslim minority: solution or



- problem?"[http://calhoun.nps.edu/bitstream/handle/10945/3182/07Dec\\_Fleming.pdf?sequence=3&isAllowed=y](http://calhoun.nps.edu/bitstream/handle/10945/3182/07Dec_Fleming.pdf?sequence=3&isAllowed=y) (검색일: 2016.1.15.)
- Ford, Robert. Goodwin, Matthew, "Understanding UKIP: Identity, Social Change and the Left Behind," *The Political Quarterly*, vol. 85, no.3 (July–September, 2014).
- Geddes, Andrew, "The EU, UKIP and the Politics of Immigration in Britain," *The Political Quarterly*, vol. 85, no. 3 (July–September 2014).
- Gifford, Chris, "The Rise of Post-imperial Populism: The case of right-wing Euroscepticism in Britain."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vol.45 (2006.)
- Geoffrey, Evans, "Euroscepticism and Conservative Electoral Support: How an asset became a liability."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28 (2006.)
- Golder, Matt, "Explaining Variation in the Success of Extreme Right Parties in Western Europe."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36, no. 4 (2003).
- Hainsworth, Paul, "The Extreme Right in France: The Rise and Rise of Jean-Marie Le Pen's Front National," *Representation*, vol. 40, no. 2 (2009).
- Hayton, Richard, "Towards the Mainstream? UKIP and 2009 Elections to the European Parliament." *Politics*, vol. 30, no. 1 (2010).
- Hix, Simon. Marsh, Michael, "Second-order Effects Plus Pan-European Political Swings: An Analysis of European Parliament Elections across Time." *Electoral Studies*, vol. 30 (2011).
- Ignazi, Piero, *Extreme Right Parties in Western Europ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Jackman, Robert W. Volpert, Karin, "Conditions Favouring Parties of the Extreme Right in Western Europ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26, no. 4 (1996).
- John, Paul. and H. Margetts, "The Latent Support for the extreme right in British Politics." *West European Politics* vol. 32, no. 3 (2009).
- Joppke, Christian, *Multicultural Citizenship* (SAGE, 8, Aug, 2011). <https://politicaedireitoshumanos.files.wordpress.com/2011/09/christian-joppke-multicultural-citizenship.pdf> (검색일: 2014.10.1.)
- Kaufmann, Eric, "The Politics of Immigration: UKIP and Beyond," *The Political Quarterly*, vol.85, no.3 (July–September 2014).

- Kymlicka, Will, *Multiculturalism: Success, Failure, and the Future* (Washington: Migration Policy Institute, 2012)
- Ford, Robert. Goodwin, Matthew J. Cutts, David, "Strategic Eurosceptics and Polite Xenophobe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vol. 51, no. 2 (2012).
- Ford, Robert. Goodwin, Matthew, "Understanding UKIP: Identity, Social Change and the Left Behind." *The Political Quarterly* vol. 85, no. 3 (2014).
- \_\_\_\_\_. "Angry White Men: Individual and Contextual Predictors of Support for the British National Party." *Political Studies* vol. 58, issue. 1 (2010).
- \_\_\_\_\_. "Strategic Eurosceptics and polite xenophobes: Support for the UKIP in the 2009 European Parliament election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vol. 51 (2012).
- Hayton, Richard, "Towards the Mainstream? UKIP and the 2009 Elections to the European Parliament." *Politics* vol. 30, no. 1 (2010).
- Lubbers, Marcel. Gijberts, Merove. Scheepers, Peer, "Extreme Right-Wing Voting in Western Europe."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vol. 41, no. 3 (2002).
- Lucassen, Greetje. Lubbers, Marcel, "Who Fears What? Explaining Far-Right-Wing Preference in Europe by Distinguishing Perceived Cultural and Economic Ethnic Threat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15 (December 2011).
- Mudde, Cas, *The Ideology of the Extreme Ri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 \_\_\_\_\_. "The Populist Radical Right: A Pathological Normalcy." as Mudde, ed. *Political Extremism* (London: Sage, 2014).
- Norris, Pippa, *Radical Right: Voters and Parties in the Electoral Marke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 Oesch, Daniel, "Explaining Workers' Support for Right-Wing Populist Parties in Western Europe: Evidence from Austria, Belgium, Norway, and Switzerland,"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29, no. 3 (2008).
- Rief, K. Schmitt, H, "Nine second-order national elections a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analysis of European election result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vol. 8, no. 1 (1980).
- Russell, b, "UKIP: Last Man Standing?" (The Independent 2009/03/03)  
<http://www.independent.co.uk/news/uk/politics/ukip-last-man-standing-1635>

900.html (검색일 2015년 10월 23일)

Somerville, Will, "The Immigration Legacy of Tony Blair." Migration Policy Institute. (May 10, 2007). <http://www.migrationpolicy.org/article/immigration-legacy-tony-blair> (검색일: 2015.10.20.)

Tillie, Jean, Fenema, Meindert. "A Rational Choice for the Extreme Right," *Acta Politica*, vol.33, no.2 (2002).

UKIP, Manifesto (2010).

UKIP, Manifesto (2014).

Wellings, Ben, "Losing the peace: Euroscepticism and the foundation of contemporary English Nationalism." *Nation and Nationalism* vol. 16, no. 3 (2010).

## Abstract

An analysis of the growth of far right party and its  
sociocultural factors:  
Based on the entry of UK Independence Party into the 2014  
European Parliament

Saemee Kim\*

Jinwoo Choi\*\*

This paper examines UK Independence Party's rise in the European Parliament Elections in 2014. It is common assumption that the emergence of extreme right party could be affected by the economic situation and the election system. However, sociocultural factors have not been seen as major cause behind the rising support for UK Independence Party. This paper attempts to demonstrate that the growing support across the nation for extreme right party lies in "Britishness" and Britain's sociocultural backgrounds.

As can be seen in the instance of UK Independence party's entry in to the 2014 European Parliament, the election system can be seen as a positive influence whereas economic factors play a minor role. On the other hand , the play on sociocultural perspective "Britishness" achieves considerable returns for the elections. The sudden increase in immigrants in Britain as well as the policies in multiculturalism was recognized as threat to the identity of British society and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elections. This demonstrates that when the sociocultural factors fail to strengthen social integration, conservatism is fortified and liberal attitudes weakened in turn implying that multicultural policies could prove to play a significant influence.

---

\* Research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Peace Institute.

\*\*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 International Studies, Hanyang University.

**Key-words** : extreme-right party, UK Independence Party, European Parliament Election, multiculturalism, EU integration

논문접수일: 2016년 1월 28일

논문심사일: 2016년 2월 23일

논문게재확정일: 2016년 2월 29일

